

# 수출현안 · 수입제도 모니터링 보고(일본 도쿄지사)

I

## 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 및 동향[2019.12월]

### 1. 중국산 딸기 파우더 방사선 조사 위반 사례

- 일본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중국산 딸기 파우더 제품에서 방사선 조사 처리가 된 것으로 나타나 식품위반사례로 처리됨(12.27)
- 일본의 경우 감자에 대해서 싹 발생 방지 위한 목적으로 방사선 조사가 허용되어 있으며 그 외 품목은 금지되어 있음

※ 자료원 : 일본 후생노동성

<https://www.mhlw.go.jp/content/11130500/000582096.pdf>

### 2. 말레이시아산 백합과 야채 명령검사 조치 발동

- 일본 후생노동성은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된 유리과 야채(마늘과 부추를 접목한 개량품종)에서 잔류농약인 클로르피리포스 검출로 인한 식품위반사례가 발생함(12.24)
  - 동농약 성분은 일괄기준치인 0.01ppm을 초과 검출된 사례가 최근 2회 이상 발생하여 명령검사가 발동 조치됨
  - 명령검사품목 : 말레이시아산 유리과 야채
  - 검사강화내용 : 말레이시아산 유리과 야채는 일본 도착후 지정 검사기관에서 검사후 합격된 시험성적서 제출 해야만 통관이 가능함

※ 자료원 : 일본 후생노동성 감시안전과

[https://www.mhlw.go.jp/stf/newpage\\_08643.html](https://www.mhlw.go.jp/stf/newpage_08643.html)

II

## 통관문제사례 관련(대응방안, 사유분석, 경쟁국산 등)

## 1.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

### ○ 위반사례 발생 주요 특징

-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 발표자료에 의하면 2019. 12월의 대일수입식품류 위반건수는 81건이 발생함(식기류 제외)
- 한국산 식품위반사례는 자숙전복에서 첨가물 대상외 사용으로 인한 1건의 위반이 발생함
- 각국에서 수입된 전체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대장균 검출 등 위생위반이 35건(43.2%), 곡물류의 아플라톡신 검출 12건(14.8), 잔류농약 및 항생제 등 위반 16건(19.8)으로 나타났으며, 첨가물 위반이 18건(22.2)으로 나타남
- 2019년도는 냉동식품류의 세균위반 등에 대한 중점 검사 강화로 인해 위생위반이 35건으로 43.2%를 차지하여 제일 높은 비중을 보임

### ○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

- 미국과 중국의 경우 각각 17건의 식품위반사례로 각기 21.0%를 차지함으로서 전체 수입국중에서 위반건수가 제일 높은 국가로 나타남.
- 미국의 경우 17건의 위반건수 중 옥수수 등 곡물류에서 곰팡이 발생, 변색등으로 인한 위생위반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,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 위반이 6건, 팝콘에서 살충제 위반 1건으로 나타남.
- 중국의 경우 총17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하였는데, 냉동성게 등 수산물 및 냉동 조리 야채류 등에서 미생물 위반 사례가 9건이 발생함
- 이어서 베트남은 총7건이 위반되었는데, 냉동게, 새우류에서 대장균균양성의 위생위반이 4건이 발생함. 또한, 냉동홍고추에서 잔류농약 플로피코나졸 기준치 위반사안이 발생함
- 다음으로 위반이 높은 국가는 인도로 총6건의 위반이 발생하였으며, 고춧가루 향신료 등에서 잔류농약인 트리아조포스 위반이 4건이나 발생하여 동농약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한국의 경우 가공 자숙전복에서 첨가제인 안식향산나트륨을 대상외

사용으로 인해 1건의 위반이 발생함

<표1> 대일 수출 국가별 식품 위반건수



※ 표 왼쪽 숫자는 위반건수임